



DAOL Daily Morning Brief

DAOL 다올투자증권

04 Sep. 2026

해외시장 요약

- ▶ 미국증시: Dow (+1.18%), S&P500 (+1.06%), Nasdaq (+1.40%)
 - 미국증시, 최근 증시에 부담을 줬던 미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된 데다, 연준 고위 인사들의 비둘기 파적인 발언이 잇따르면서 3대 지수 상승
 - 월러 연준 이사, 디스플레이이션의 징후가 향후 2주동안 지속된다면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힘
 -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 현재 환율 수준과 움직임에 만족하지 않아 계속해서 임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엔비디아,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 인수 합의 소식에 +1.8% 상승
 - 마이크로소프트, Xbox 게임패스 구독자의 클라우드 게임 이용시간을 요금제별로 제한해 수익성 개선 도모하자 +2.6% 상승
 - 테슬라, 사이버캡 출시 행사를 앞두고 AI-자율주행 생태계 확장 기대에 +5.4% 상승
 - S&P500, 재량소비재 +1.6%, 금융 +1.6% vs 에너지 -0.7%, 소재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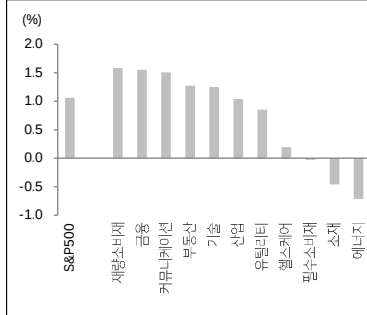
- ▶ 미국국채: 2yr 4.336%(-3.3bp), 10yr 4.768%(-1.0bp)
 - 미국채금리,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강세 재료로 작용하며 하락

- ▶ FX: JPY 155.81(-1.83%), EUR 1.163(+0.33%), Dollar 98.91(-0.69%)
 - 달러 인덱스, 연 강세 속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약세. 연은 BOJ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가운데 개입 경계감이 팽배해지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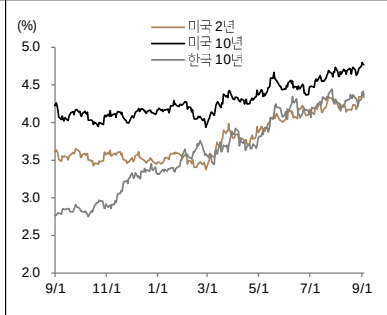
- ▶ Commodity: WTI \$91.30(+0.32%), Brent \$95.52(-0.12%)
 - WTI, 미국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를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

발표일자	주요 지표	단위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9월 3일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t	54.1	55.4	54.1
9월 4일	미국 8월 비농업고용 변동 미국 8월 실업률	k %	55.0 4.1	- -	-23.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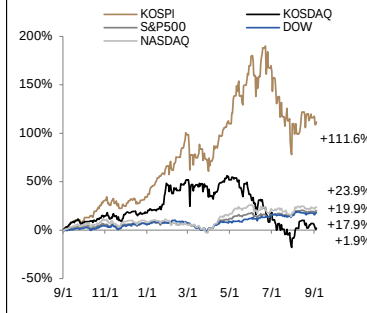
S&P500 업종별 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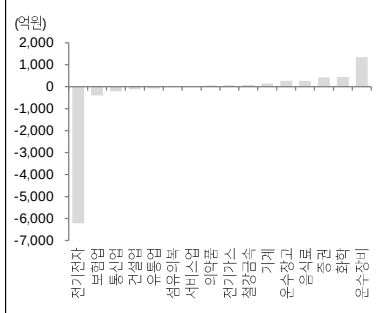
국채 수익률 추이



주요 증시 수익률 (2025년 9월 1일 이후 누적)



KOSPI 외국인 업종별 일간 순매수



Liquidity (잔액, 증감, 심의원)

구분	잔액	1D	1W	1M	3M	1Y	YTD
고객예탁금*	102,267	4,098	3,350	-558	-34,544	34,804	14,438
미수금*	924	-1	-1,149	-643	-404	-6	-37
신용장교*	33,440	10	338	5,997	-4,269	11,289	6,154
MMF*	257,707	77	-253	5,566	1,436	25,521	64,267
채권형*	212,261	111	-1,566	-534	-4,869	-9,788	-1,480
주식형(국내)*	193,993	-6,725	-6,051	9,743	-42,235	114,956	85,585
주식형(해외)*	134,670	-1,411	-1,727	1,864	-7,486	58,356	35,317
외국인 개인	45	-3,873	-9,340	-55,219	-170,009	-171,489	
기관	914	-955	1,080	-1,428	40,061	91,143	108,588
투신	-115	-3,727	-4,325	-1,589	46,765	32,223	
연기금	-115	-1,102	-1,175	-2,411	-7,111	-5,701	
금융투자	-44	-241	-870	-2,176	-9,626	-8,581	
보험	1,028	-1,561	-1,456	3,929	83,116	61,372	
프로그래밍 차익	20	51	218	299	-10,293	-7,425	
프로그래밍 비차익	5	-116	-80	196	5,533	3,565	
프로그래밍 비차익	-404	-3,982	-18,419	-51,796	-136,316	-131,970	

*는 D-2 거래일 기준, 펀드는 설정액 및 ETF 제외 기준, 매매추이는 KOSPI 기준

	Index	1D(%)	1W(%)	1M(%)	3M(%)	1Y(%)	YTD(%)
KOSPI	6,579.5	0.3	(4.8)	3.5	(23.8)	109.4	56.1
KOSDAQ	790.2	(1.7)	(5.7)	1.2	(24.7)	1.7	-14.6
DOW	53,686.1	1.2	0.2	(1.2)	4.1	18.6	11.7
S&P500	7,747.7	1.1	0.2	0.3	2.2	20.2	13.2
NASDAQ	26,584.1	1.4	0.2	0.8	(0.9)	23.7	14.4
유로 STOXX 50	6,382.6	0.3	(0.7)	(1.5)	5.3	18.9	10.1
영국_FTSE100	10,831.5	0.7	(0.4)	(0.4)	4.5	17.5	9.1
일본_NIKKEI225	64,214.5	(0.2)	(2.9)	0.4	(4.8)	50.7	27.6
대만_TWSE	45,857.7	(0.7)	(0.3)	2.8	0.4	94.1	58.3
홍콩_HS	25,213.3	(0.4)	(1.4)	(2.7)	(0.2)	(2.4)	(1.6)
중국_Shanghai	3,942.1	0.0	(0.4)	1.6	(2.1)	4.7	(0.7)
인도_SENSEX30	76,152.9	(0.5)	(1.0)	(3.1)	2.6	(4.9)	(10.6)
브라질_BOVESPA	185,188.1	(0.0)	5.7	4.2	9.8	31.1	14.9
KOSPI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에너지	7,675.8	(0.5)	0.1	11.6	(5.3)	96.8	61.1
화학	4,348.3	2.9	(0.3)	10.3	(19.1)	9.4	(2.8)
비철,목재 등	6,486.7	0.8	(8.4)	16.3	(5.9)	23.8	(8.3)
철강	2,359.4	3.6	0.6	9.9	(14.3)	8.9	8.7
건설,건축관련	2,330.6	3.9	(6.5)	9.1	(7.6)	55.1	53.3
기계	10,739.3	0.9	(9.4)	3.9	(22.8)	54.6	19.8
조선	7,563.9	4.5	(3.5)	(3.0)	(23.0)	(3.8)	(13.2)
상사,자본재	5,632.4	1.2	(5.3)	3.1	(19.2)	123.9	62.2
운송	1,937.1	1.4	1.4	4.9	7.1	7.0	9.9
자동차	13,543.5	1.7	(2.6)	(4.0)	(36.9)	43.4	14.2
화장품,의류,완구	6,203.6	(1.6)	(2.3)	6.6	9.3	20.1	26.5
호텔,레저서비스	1,601.9	(1.5)	0.0	1.7	(14.2)	(29.1)	(30.7)
미디어,교육	492.5	(0.1)	(1.2)	(1.6)	(12.3)	(33.3)	(37.5)
소매(유통)	2,399.7	(0.1)	(1.7)	(5.0)	(25.7)	30.5	19.1
필수소비재	7,632.5	(0.4)	(0.1)	3.7	4.8	11.1	12.0
건강관리	9,542.9	(0.5)	(3.7)	2.5	2.9	11.5	(9.8)
은행	3,601.4	3.3	5.1	7.5	10.8	49.7	34.5
증권	2,650.0	1.5	(0.1)	(1.3)	(21.9)	32.6	18.0
보험	16,867.5	4.8	2.6	15.7	(10.9)	79.1	62.4
소프트웨어	6,275.3	(0.9)	(3.1)	(4.8)	(21.9)	(11.7)	(12.4)
IT하드웨어	4,115.8	(3.6)	(3.3)	12.4	(27.6)	375.8	200.4
반도체	46,133.1	(0.6)	(6.8)	2.4	(29.7)	338.6	122.0
IT가전	3,036.9	0.9	(3.0)	22.4	(23.0)	84.6	63.9
디스플레이	552.5	(0.1)	(4.4)	(1.9)	(40.7)	(20.8)	(21.6)
통신서비스	465.5	(1.4)	(5.4)	(0.6)	(11.3)	21.8	26.7
유틸리티	1,075.5	2.9	(4.7)	(2.1)	(12.0)	(10.3)	(20.8)
S&P500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기술	6,998.8	1.3	(0.4)	0.9	(0.7)	33.9	23.1
헬스케어	2,017.0	0.2	1.0	5.4	14.1	26.6	11.7
금융	972.2	1.6	1.1	0.8	12.2	9.4	6.6
재량소비재	1,917.8	1.6	0.8	(2.1)	(0.4)	3.6	(0.6)
커뮤니케이션	460.7	1.5	2.0	(1.5)	(4.4)	11.3	1.8
산업	1,474.7	1.0	(2.5)	(6.5)	(0.9)	16.6	12.3
필수소비재	937.2	(0.0)	0.6	(0.6)	2.4	5.5	8.4
에너지	982.8	(0.7)	3.9	11.8	10.2	46.2	43.0
유틸리티	435.0	0.9	(0.5)	(1.9)	(2.2)	2.6	0.3
부동산	281.9	1.3	(0.9)	(1.9)	0.2	8.4	10.5
소재	661.6	(0.5)	(1.5)	0.6	2.7	14.5	15.2
Commodity	Inx/Price	1D(%)	1W(%)	1M(%)	3M(%)	1Y(%)	YTD(%)
Reuters CRB	416.7	(0.0)	2.8	11.3	8.5	38.7	39.5
BDI	3,488	4.7	14.1	18.8	17.0	72.3	85.8
WTI(\$/Barrel)	91.3	0.3	9.3	21.4	(1.9)	43.8	59.0
Brent(\$/Barrel)	95.5	(0.1)	6.5	20.2	0.5	42.6	57.0
Dubai(\$/Barrel)	89.2	2.0	2.0	1.0	32.8	46.0	
금(\$/oz.)	4,504.9	2.8	(2.3)	6.1	0.7	25.9	3.8
은(\$/oz.)	67.0	3.5	(3.5)	7.5	(9.5)	63.7	(5.1)
구리(\$/ton)	14,391.4	0.6	(0.5)	1.6	6.7	46.4	15.6
알루미늄(\$/ton)	3,315.0	1.0	3.0	2.3	(9.1)	27.7	11.7
천연가스\$/MMBtu	2.91	(1.5)	0.2	8.4	(12.7)	(5.2)	(21.0)
FX	Price	1D(bp)	1W(bp)	1M(bp)	3M(bp)	1Y(bp)	YTD(bp)
달러 인덱스	98.9	(0.7)	(0.3)	(0.8)	(1.1)	1.4	0.6
원/달러	1,356.6	(0.1)	(1.8)	(4.6)	(11.2)	(2.1)	(6.1)
원/100엔	870.8	1.7	0.4	(3.3)	(8.7)	(7.5)	(5.5)
위안/달러	6.72	(0.0)	(0.0)	(0.5)	(1.0)	(6.4)	(4.7)
달러/유로	1.16	0.3	(0.2)	0.6	0.8	(0.9)	(1.0)
엔/달러	155.8	(1.8)	(2.2)	(1.2)	(2.7)	5.5	(0.6)
Bitcoin(\$)	81,470.0	5.3	4.3	28.6	32.4	(7.3)	(7.0)
Bond & Credit	Price	1D(bp)	1W(bp)	1M(bp)	3M(bp)	1Y(bp)	YTD(bp)
국고채_3년(%)	3.88	(5.3)	13.2	14.2	2.2	142.7	93.1
국고채_10년(%)	4.37	(5.0)	14.6	11.2	14.0	150.7	98.2
미국채_2y(%)	4.34	(3.3)	10.4	15.5	17.4	79.9	86.3
미국채_10y(%)	4.77	(1.0)	9.2	15.5	20.6	73.1	60.1
독일 국채_10y(%)	3.34	(3.3)	9.0	23.2	28.3	62.8	48.8
북미 투자등급채(bp)	115.2	(0.4)	0.8	(1.1)	4.6	(12.0)	2.6
북미 투기등급채(bp)	301.4	(1.5)	(6.2)	(10.7)	(19.8)	(41.2)	(39.3)

*데이터 일자자는 D-1 거래일 기준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의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



IT		
IT	삼성전자, 2분기 HBM 점유율 33%로 급등...SK하이닉스와 격차 축소	https://buly.kr/AlnFsNr
	매출액 기준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0%로 1위, 삼성전자는 33%로 양사 점유율 차이는 17%p...전년 동기(43%p), 전 분기(37%p) 대비 감소	
	삼성전자 "로봇, 다양한 폼팩터로 선보일 것"	https://buly.kr/6BzYNPL
	DX 포र्ट치니 CDO,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에서 로봇·AI 디자인 비전 공개	
산업재		
조선/기계/방산	한화오션, 대만 양명해운 컨테이너선 6척 수주...1.5조 규모	https://buly.kr/3CQfg4n
	해당 선박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하반기(7~12월)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	
건설/부동산	삼성물산, 스웨덴 SMR 사업 따냈다	https://buly.kr/ET1Agfe
	삼성물산, 3일 GE버노바히타치원자력에너지와 스웨덴 스투드스빅이 주관한 신규 원전 공동개발협약 체결	
철강	당진 현대제철서 폭발...인명피해 없어	https://buly.kr/6BzYLy1
	2일 오전 9시38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	
소비재		
자동차/모빌리티	가나 생산기반 넓히는 현대차...미래차 정비인력도 키운다	https://buly.kr/Gvpmd5p
	현대자동차가 3일(현지시간) 가나에서 미래차 정비 인력 양성 사업을 공식 출범	
	美 관세에 K4 돌려보냈는데...기아, 멕시코 전략 다시 짜나	https://buly.kr/Crmz6N
화장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을 줄여온 기아가 멕시코 공장의 복미 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	
	미샤 'BB크림' 약국 진출... 명동 '라인영' 입점	https://buly.kr/Gvpmd1p
	에이블씨엔씨가 미샤 'M 퍼펙트 커버 BB크림 PRO'를 서울 명동 '라인영' 약국에 입점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	
의료기기	한스바이오메드 '바운스', 상급종합병원 공급 확대	https://buly.kr/BTSHnlb
	한스바이오메드의 국산 가슴보형물 '바운스'가 유방 재건 수술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공급을 확대	
제약/바이오	아케소·서팅, PD-1·VEGF '이보네시맵' NSCLC 3상서 '키트루다' OS 넘었다	https://buly.kr/883tAl3
	이보네시맵, 1L PD-L1+ NSCLC 3상에서 키트루다 대비 PFS에 이어 OS까지 유의하게 개선하며 PD-1×VEGF 이중항체의 경쟁력 입증	
	GC녹십자웰빙 파트너사, 차세대 지방분해 물질 'RZL-012' 중 3상 성공	https://buly.kr/3YGBfyO
음식료	RZL-012, 중국 이중특 환자 대상 3상에서 1회 투여만으로 1·2차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며 상업화 가능성 확인	
	농심, 인도 4개 도시에 '신라면 분식' 연다...K컬처 축제 참가	https://buly.kr/7x98BxY
	농심, 인도 4개 도시에서 신라면 체험형 마케팅 확대...상반기 인도 수출액도 YoY +47%로 고성장 지속	
서비스		
인터넷/게임/레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 네이비가 만든다	https://buly.kr/EI6PUpZ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	
	크래프톤 게임 지스타에서 즐긴다...10년 연속 참가	https://buly.kr/EI6PUqZ
운송	크래프톤이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에 참가할 예정	
	대한항공, 무인기에 '피지컬 AI' 심는다...AI 파일럿 공개	https://buly.kr/uWowrD
금융	대한항공이 인공지능(AI)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무인기에 접목하며 차세대 국방 기술 확보에 속도	
	자산 규모 적은 저축銀에 가계대출 추가 한도 배정	https://buly.kr/883tNCA
	금감원, 저축은행 가계대출 추가 한도를 자산 규모가 작은 곳부터 우선 배분. 중금리대출 부실을 가계대출로 상쇄하도록 유도하는 취지	
	하나금융, 손보에 최대 2000억 증자 추진	https://buly.kr/B7cm360
	하나금융, 내년 하나손보에 최대 2,000억원 추가 증자 검토	